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6. 6. 7(화) ~ 6. 9(목)

출장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출장자: 김동주 원장, 정일호 선임연구위원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2. 출장기간: 2016. 6. 7 (화) ~ 6. 9 (목)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일호	

4. 출장목적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의 중요 교두보인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현지 정부기관, 민간기업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2015년 정책토론회(하바롭스크)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 논의
- 극동러시아 개발 정책, 주요 산업별 최신 동향 및 연구성과 공유

II.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장소	주요 수행업무	관계자
6.7 (화)	인천	러시아 블라디 보스톡	현대호텔	(10:10) 인천 출발 (13:50)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도착 (17:00-18:30) 한·러 다이얼로그 참석	- 한국측 : 안세영 경제인 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성 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박정 하 전 제주특별자치도청 부지사, 임오규 유수로지스 틱스 대표, 추연우 부산항 만공사 국제물류사업단장,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 김 민수 한국통산 이사, 이석 배 총영사, 양기모 KOTRA 관장 등
6.8 (수)		블라디 보스톡	현대호텔	(08:30-18:20) 한러 극동포럼	- 러시아측 : 고르차코프 연해주의회 의장, 니하예프 연해주 부지사, 뽀펠로바 극동개발기금 국장, 극동개 발부(1명), 오가이 국립해 양대 총장, 극동개발공사, 세메니힌 극동해운항만연 구소장, 아브라모프 극동대 학 교수, 라린 역사연구소 장, 보차로프 TINRO 소장, 블라디보스톡시, 극동 주정 부 관계자 3~4명 등
6.9 (목)	러시아 블라디 보스톡	인천	블라디보스톡	(09:00-12:00) 현장조사 (14:50) 블라디보스톡 출발 (16:30) 인천 도착	

III. 수행사항

1. 한-러 다이얼로그

1) 다이얼로그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6. 6. 7(화) 17:00~18:30,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

□ 주최/주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KOTRA

□ 참석자 (총 22명)

- 한국측(9명) :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좌장), 이석배 총영사,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김민수 한국통산 이사, 천석범 유수로지 스틱스 전무,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기모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장
- 러측(13명) : 고르차코프 연해주의회 의장(좌장), 두비닌 극동개발부 부국장, 사치코프 극동개발 공사 국장, 크라제프 주한 러시아대사관 관세관, 비사이드프 사할린주 수산청 수석고문, 나즈바노프 캄차트카주 투자청 부청장, 바란니코프 추코트카주 대표, 데멘코 자바이칼주 주지사 고문, 오가이 세르게이 국립해양대 총장, 라린 역사연구소장, 보차로프 TINRO 소장, 홀로샤 극동해운항만연구소 실장, 팜필로바 극동개발기금 국장

2) 주요내용

(1) 핵심요지 (관찰 및 평가 포함)

○(극동포럼 역할 평가) 한-러 다이얼로그 참석자들은 제2차 동방경제포럼(9.2-9.3)을 앞두고 개최된 금번 포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간 극동포럼이 러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확대 방안 모색, △유망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약체'로 정착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함.

- 특히 금번 포럼에 양국의 60여개 민간 기업이 참가함으로써 지난 제5차 포럼에서 제기된 포럼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 기업의 극동지역 진출과 양국 기업간 협력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극동개발 관련) 양측 참석자들은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으로 대표되는 극동개발 정책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극동개발 과정에 한국의 역할이

향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역내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는 민간 기업인들의 주도적 참여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표함.

- 러측에서는 민간차원의 양자협력 외에 중국 등 주변국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협력의 틀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실질 협력 증진 관련) △러 극동의 개발전망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 △양국간 성공사례 부족 △극동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장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동 구체 해결 방식에서는 미묘한 인식의 차이도 보여줌.
 - 러 측은 극동지역에서 당장 실현가능한 사업(예: 관광, 농수산 분야 등)부터 추진하여 성공사례를 축적해 쌓아가는 접근방식을 제시한 데 비해 한국 측은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예: 통관 등 행정장벽 제거)의 법적,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
- (물류통관 문제 관련) 많은 참석자들은 부산-블라디보스톡-크라스키노-훈춘(및 속초-동해-자루비노-크라스키노-훈춘) 물류노선 활용에 많은 관심과, 동 노선 활성화를 위한 통관문제 해소 등의 필요성을 제기함.
 - 참석자들은 동 노선이 한국-연해주-중국 동북3성으로 이어지는 황금노선임과 러 측으로서는 막대한 통과료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동 노선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데 아쉬움을 표함.

(2) 한·러 다이얼로그 결과 (참석자 발언요지)

□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한국측 좌장)

- 제6차 한-러 극동포럼의 일환으로 오늘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러 다이얼로그가 개최되어 기쁨. 내일 포럼 본 회의 세션에서 통관, 물류, 수산, 의료,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 간 극동지역 협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겠으나, 오늘 다이얼로그에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있기를 기대함.
 - 극동지역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금번 회의를 통해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블라디보스톡-훈춘(자루비노-훈춘)간 물류 노선 활용에 전기가 마련되어 한·중·러 기업인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

□ 고르차코프 연해주의회 의장(러측 좌장)

- 한-러 극동포럼은 극동지역 관련 양국 연구기관, 학계 인사들이 협력의 효율성 제고와 구체사업 발굴 및 조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한-러 유망협력 분야 중 최근 들어 특히 관광이 부상하고 있으며 동 분야에서 한-러 양국 뿐 아니라 중국 등 동북아 국가간 협력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며, 향후 관광 분야를 별도 세션으로 배정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램.
 - 금년 4월 한국(충남 예산)에서 열린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에 참석하였으며, 한국,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참석자들은 동북아 관광, 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5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태평양국제관광박람회(PITE)에도 한국 등 많은 외국대표단이 참가하였음.

□ 라린 극동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소장

- 태평양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은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 건설이라는 거대한 틀에서 출발해야 함.
 -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은 경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프로젝트이며, 한편 유라시아 남쪽은 여전히 한반도, 남중국해, 동남아 문제 등 갈등현안이 존재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됨.
-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은 양국 정부간 우선 협의되어야 하나, 전문가 그룹 또한 호혜적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고 보며 특히, 한-러 양자간 경협 외에 일본, 중국, 미국, 북한까지도 참여하는 다자간 인문학적 교류의 틀도 구축될 필요가 있음.
 - 고르차코프 의장의 언급처럼 실제 실현가능한 분야(관광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상호이해와 신뢰의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포럼 이후 일반인들의 참여 가능한 부대행사(한국문화페스티벌 등)개최도 검토할 필요
- 특히, 2017년에 개최되는 제7차 한-러 극동포럼에서는 본행사 전 한-러 다이얼로그에서 금년에 논의된 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며, 또한 기업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함.

□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협력증진에 있어서 상호이해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고르차코프 의장과 라린 소장의 견해에 동감함.

금년 6차 포럼은 가시적 성과 도출 차원에서 특별히 의료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세션과 상담회 등을 통해 한국의 투자진출을 통한 동 분야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임.

- 관광 분야 또한 양국간 유망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금년 5월 롯데관광이 추진한 크루즈가 최초로 블라디보스톡에 입항한 바, 향후 동 분야의 발전이 기대됨.

○ 금번 포럼에서는 양국간 물류협력 제고 방안 차원에서 한국의 물류기업, 러시아 극동개발부, 관세청 등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별도회의가 마련됨.

- 현재 중국 동북3성의 화물이 대련항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통관 등 실질문제 논의를 통해 연해주 항만을 경유하는 루트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함.

□ 홀로샤 극동해운항만연구소(FEMRI) 실장

○ 라린 소장의 언급과 같이 그간 유라시아 대륙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구상이 존재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음.

○ 한-러 협력에서 다양한 유망사업이 논의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교통-물류 분야 협력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다각도의 구체 지원책 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물류가 원활하게 흘러야 여타 공동 프로젝트 실현이 가능하며, 이런 측면에서 러 정부 관련 부처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크라제프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관

○ 국제통과화물 처리 관련 문제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내일 본회의 세션에서 극동세관 측의 상세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통과화물의 경우 한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색을 생략하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전수검사가 원칙이라는 양국 관세제도상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임.

○ 러 관세청 특히 극동세관 차원에서 통관절차 간소화, 통과화물에 처리에 대한 최적화 작업 등 역내 물류증대를 위한 여건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정도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봄.

□ 이석배 총영사

- 극동지역내 통관 문제 관련 그간 극동개발부, 관세청, 연해주정부 등과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점차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 시행으로 원스톱서비스, 화물에 대한 선별조사 등 비즈니스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일부 인프라 개선에는 좀 더 시간일 걸릴 수 있겠으나 러 정부의 통관절차 개선 의지가 담긴 관련법령이 조속 작동되기를 바람.
- 러 극동지역내 한-러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양국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요소임. 총영사관은 그간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공사 및 극동 지방정부와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해 아쉬움.
 - 금번 포럼에서 양국 기업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질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지난 2013.11월 조성된 양국간 투융자 플랫폼을 비롯하여 극동개발기금 재원 활용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함.

□ 두비닌 극동개발부 부국장

- 현재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이 구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금번 한-러 포럼에서 극동개발 정책의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생각함.
- 지난 1년여 사이에 극동지역에 12개의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이 설립되었고 극동개발공사, 극동개발기금 등의 업무도 적극 추진 중임.
 -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입주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기업의 참여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참여도 예상됨.

□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 1년여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극동개발 정책이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산업개편(클러스터化), 경제구조 개선(단순 원자재 수출 의존 탈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극동지역이 동북아 내에서도 핵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 한국과의 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협력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봄.

- 한국내 특구운영, 경제개발 경험 공유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 중 한국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공사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한초청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동 초청 사업을 통해 양측간 경험공유와 함께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희망함.

□ 팜필로바 극동개발기금 국장

- 극동개발기금은 수년전에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최근 들어 구체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바, 인프라, 교통, 물류, 자원 등 극동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금번 한-러 극동포럼과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극동지역에서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유망 프로젝트들이 논의되고 발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최근 한국측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긍정적인 답이 있기를 기대함.

□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지 15년이 되었으며, 현재 국내외 관광객 급증, 신규기업 유치,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 주된 성공요인은 무비자 시행, 對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과감한 제도적 개선임.
- 러 극동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OPEN 시스템 하에 제도적, 물리적, 지식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금번 포럼을 통해 양국기업이 구체 실행단계로 옮길 수 있는 사업발굴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함.

□ 보차로프 TINRO 소장

- 한국과 러시아는 수산 분야에서 정부간, 연구기관간 협력이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구체 진전사항은 불법어업(IUU) 협정 체결임. 또한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내 협력도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최근 본인은 중국에서 열린 PICES 회의에 참석)
- 러시아는 한국을 수산 분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측에 투자를 전제로 한 특혜 제공을 약속함. 극동지역내 수산클러스터(연해주내 2개) 조성 프로젝트에 한국의 수개 수산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수산클러스터 진출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러 파트너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합작회사를 설립해야 리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 김민수 한국통산 이사

○한국통산은 중국, 이란,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해외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리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연해주 수산물클러스터 프로젝트 일환으로 수산물 냉동창고, 가공설비 및 오페수 처리 시설 건설 사업을 리 수산청 등과 협의 중임.
- 루블화 환율 하락, 제반 인프라 개선 등 감안시 극동지역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며 구체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 비사이드프 사할린주 수산청 수석고문

○수산 분야 발전은 사할린주의 우선순위 중 하나임. 현재 수산 가공 및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코르사코프항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바, 내일 수산세션에서 동 분야의 상세 논의를 기대함.

- 한국의 수산 기업들은 수산물 가공 첨단기술과 함께 운영 노하우도 높은 수준인 바, 한국 수산 기업들로 구성된 기업 대표단 방문을 기대함.

□ 천석범 우수로지스틱 전문

○물류기업 대표로서 금번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러시아 극동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 중국으로부터 생수 수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일환으로 금년 중 선양과 대련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임.
- 연해주 등 극동지역의 물류 분야에서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다면 중국 동북3성에 대한 투자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 물류루트(대련)의 제약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오가이 국립해양대 총장

○극동포럼이 지난 6년을 거치면서 정례화 되고 실현가능한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고 봄.

- 지난해 국립해양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력하여 국립해양대에 한-러‘한-러 공동연구센터’를 설립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금년 중에는 시베리아 수로 운송 잠재력, 북극해 항로(금년에 소련시대 최고 수송량 경신 예상) 등을 주제로 양국 전문가 공동연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됨.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역은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시발점, 제반 풍부한 자연자원(시베리아호랑이) 보유 등으로 관광산업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여겨짐.
 - 한국인들에게는 아직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먼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2시간여 만에 유럽도시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람.
- ※ 이와 관련 고르차코프 의장은 연방차원의 관광프로젝트인 ‘Eastern Ring’ (연해주로 부터 시작하여 캄차트카, 사하공화국, 아무르주, 하바롭스크주를 잇는 관광루트), 연해주 사파리공원(호랑이, 표범 서식) 등을 소개
- 극동지역이 보유한 잠재력을 대외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극동포럼 등 계기를 통해 양국 언론인 간 교류 확대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함.

□ 나즈바노프 캄차트카주 투자청 부청장

- 캄차트카주는 3년째 한국이 주도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과정,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극동개발부에 여러 투자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 캄차트카주는 지리적,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여타 극동지역 대비 항공, 항만 등 교통과 관광 분야의 개발 잠재력이 보다 큼.

□ 양기모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장

-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또한 최근 들어 민간기업의 극동으로의 회귀 또는 신규진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포럼 계기 B2B 미팅 참석차 한국에서 23개 업체가 방문한 것은 의미가 큼.
 - ‘Made with Russia’ B2B 상담회를 통해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내 양국간 기술과

- 개발 노하우를 접목한 구체사업이 탄생되기를 기대함.
- 금번 포럼 성과를 위해서는 양측 참석자간 가감 없는 협력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유망사업 발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이행(통관 등)에 대한 신뢰감 제공, 특히 업체의 진솔한 의견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 중요하다고 봄.
 - 그간 러 정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구체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거의 실현된 것이 없어 매우 곤혹스러움.
 - 금번 포럼을 통해 왜 통관절차 개선 등 중요한 사안에 진전이 없는지, 극동개발을 위한 특정 정책과 법률의 투명성이 부재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함.



2. 제6차 한·러 극동포럼

1)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6. 6. 8(수) 09:00~18:30,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

□ 주최/주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KOTRA

□ 참석자

- 한국측 :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김민수 한국통산 이사, 천석범 유수로지스틱스 전무,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당관) 본직, 윤세영 영사, 이지훈 영사, 고경봉 영사, 조근희 부영사, 박덕수 선임연구원, 양기모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장 등
- 러시아측 : 고르차코프 연해주의회 의장, 니하예프 연해주 부지사, 갈리츠 캄차카 부지사, 페데톱스키 극동개발부 국장, 티하노프 극동개발공사 사장, 오가이 세르게이 국립해양대 총장, 보차로프 TINRO 원장, 쿠즈니소프 태평양의대 부총장, 홀로샤 극동해운항만연구소 실장, 루킨 극동연방대 교수 등

2) 주요내용

(1) 개회식 (09:00 - 09:30)

□ 개회사 (안세영 이사장)

- 한-러 극동포럼이 극동지역 개발에 있어 한-러 양국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양국간 협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간 신뢰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봄.

-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동 포럼에서 기존 러측에서 요청해 온 구체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기업인간 협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번 제6차 포럼에서는 동 포럼 개최 후 최초로 23개의 한국 기업에서 30여명이 참석하여 B2B 행사를 진행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함.

- 한국 기업들의 경우 부산항-블라디보스톡항-훈춘을 통한 중국 동북 3성으로의 물류 연계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금번 포럼을 통해 러측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에 있어 러측의 전향적인 검토 및 구체적 성과 거양을 기대함.
 - 상기 물류 및 유통 분야 이외에도 △수산업, △관광 산업과 함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러측과 공유하는 ‘지식공유사업(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 등에 있어서도 한러 양국간 상생의 협력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러시아 역시 극동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극동개발의 성공의 위해서는 자본 및 기술력을 갖춘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필수적임.
 - 특히, 한국 기업들의 경우 과거 중앙아시아 및 동구권 등지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한 적극성 및 진취성을 지니고 있는 바, 위험 기피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 및 일본 등 여타 아태지역 국가들에 비해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됨.

□ 환영사 (미클루셴스키 연해주 주지사)

- 러 연방정부 차원에서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도입을 통해 ‘블라디보스톡’을 소위 ‘경제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과의 구체 협력사업 발굴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생각함.
 - 연해주에 있어 한국은 핵심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주요 투자국인 만큼, △제조업 분야는 물론, △농업 및 수산업, △관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 ※ 상기 미클루셴스키 지사의 환영사는 ‘니하예프’ 국제관계 담당 부지사가 대독

□ 환영사 (페데롭스키 극동개발부 국장)

- 금번 포럼을 통해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의 방향성 및 구체 방안들이 논의되는 동시에, △기존 한국 기업들의 극동지역 투자 진출에 장애 요인 및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한러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또한, 극동개발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를 한국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양국 협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금번 포럼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극동지역 진출을 본격화하여 내년 포럼에서는 (한러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을 토의될 수 있기를 기대함.

□ 환영사 (티하노프 극동개발공사 사장)

○△러 극동지역은 중국 동북3성과의 물류 연계성뿐만 아니라 풍부한 천연자원 및 항공기 제작 등 첨단 기술 관련 산업기반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며, △한국 역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단기적 경제발전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바, 금번 포럼에서 이러한 상호간의 경쟁력 및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양국간 경제협력 추진에 있어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램.

- 현재 극동지역내 선도개발구역 제도를 통해 12개의 핵심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으며, 약 200여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동 제도 활용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한국 기업들 역시 보다 적극적인 투자 기대

□ 축사 (이석배 총영사)

○2013.11월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국간 협력 방안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 이후 기업 차원에서의 한 일부 성과가 있었던 반면, 극동지역 개발에 있어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 바, 오는 9월 개최될 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개최된 금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함.

- 특히, 금번 포럼은 최초로 한국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Made with Russia’라는 B2B 행사도 병행 개최된다는 점에서, 한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공동투자 프로젝트들이 현실화되어 실질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 개회사

▲ 주요贵宾 기념촬영

(2) 제1세션 :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추진 동향(09:40-10:50)

※ 좌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가. 주제발표

□ 극동지역 사회경제 개발 프로그램 이행 메커니즘(페데롭스키 극동개발부 국장)

- 2015년은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관련 법률이 각각 제정되어, 극동개발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의미 있는 시기였던 것으로 평가하며, 동 제도들을 통해 러시아에 있어 정치적 차원의 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선도개발구역은 연해주 및 하바롭스크주 등 극동지역내 7개 지방에 총 12개의 프로젝트가 지정되었으며, 선도개발구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마가단주와 유대인자 치주가 있으나, 마가단주는 (선도개발구역과 유사한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되는) 특별경제제도가 별도로 운영
 - 한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역시 블라디보스톡항을 포함한 연해주 지역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포되었으며, 순차적으로 동 자유항 제도를 극동지역 전체 항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제도 법률 제정 이후 러시아 국내외 기업들의 입주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가 하락 및 루블화 가치 폭락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극동지역내 산업생산량이 전년 대비 2.2% 증가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은 수치상 동 제도 선포 이후 긍정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것으로 평가됨.

- 극동개발부로서는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원스톱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의 조치를 산하 극동개발공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관리 및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극동개발공사는 입주기업 신청 및 심사, 법률 자문, 투자 관련 맞춤형 서비스 등에 집중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 중
- 극동개발공사 이외에도 △극동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오던 우수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자본개발청’, △지역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목적으로 약 650억 루블(약 10억 달러)의 자본금을 갖춘 ‘극동개발기금’ 등도 운영 중
-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는 모두 각종 혜택제공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 기업들의 극동지역 개발 참여를 지원한다는 유사한 목적이 있으나, △제도의 목적, △지리적 적용 범위, △관련 인프라 설치 주체, △입주기업으로의 필요 투자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선도개발구역은 극동지역 국내시장 개발에 목적이 있는 반면, 자유항은 국제 무역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선도개발구역의 구체적인 지리적 적용범위가 없으나, 자유항 제도는 특정 범위가 정해져 있고, △교통 및 전력 등 인프라 문제 역시 선도개발구역은 관리회사가 담당하는 데 비해 자유항은 입주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입주기업의 필요 투자규모 역시 선도개발구역은 50만 루블(미화 \$8,000), 자유항은 500만 루블(\$80,000)로 차이가 있음.

□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활성화 관련 한-러 협력방안(한우석 국토연구원 박사)

- 극동지역 개발에 있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 △풍부한 자원 등은 강점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접점 지역이라는 측면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연계 가능한 것은 기회요인이나, 선도개발구역 등 극동개발 정책 추진시 약점으로 인식되는 요소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
 - 동 지역에 기존 진출하였거나 투자 검토 중인 한국 기업들의 경험에 따른 애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극동지역의 약점으로 △의료 및 교육 등 생활 환경적 인프라 미비, △복잡한 법 제도 및 러측 사업파트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재정 확보의 어려움 및 물류 인프라 부족, △전문가 인력을 포함한 인적자본 빈약 등이 있음.
- 따라서, 극동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방향을 설정에 있어 SWOT 분석결과, △(strength) 지정학적

이점, 풍부한 자원 △(weakness) 생활환경 인프라 부족, 재정보호 어려움, 인적자본 부족 등, △(opportunity)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신동방정책(러시아)-일대일로(중국)간 연계성, △(threats) 한반도내 긴장 가능성 및 세계적 경제 침체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상기 SWOT 분석 결과에 따른 최선의 효율적 한-러간 협력 방향은 △인프라 및 분쟁 해결 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PPP) 확대, △위험 분산을 위한 다자 컨소시엄 구성, △극동지역 진출에 있어 중국 및 북한을 포함한 인접국과의 협력 강화, △환동해권 연계를 통한 시장 확보 등으로 대별됨.

- 이러한 방향성을 감안한 유망 프로젝트 분야로는 △물류유통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에너지자원 개발, △도시 생활환경 인프라, △관광 개발 등이며, 각 분야별 프로젝트 추진은 전반적인 지역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 설정 필요



▲ 세션1 좌장(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 세션1 한국측 발표(국토연구원 한우석 박사)



▲ 페테롭스키 극동개발부 국장 발표자료



▲ 한우석 국토연구원 박사 발표자료

나. 토론

□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 블라디보스톡은 인구 규모(60만명 수준) 및 중앙 정부와의 원격성, 특별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제주도와 유사한 점이 많은 바, △개발계획 대비 재정 부족 해결방안, △중앙정부의 협조 확보, △개발 및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있어 제주도가 경험한 시행착오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제주도-블라디보스톡(연해주)간 지방 차원의 구체 협력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바, 제주가 현재 중점추진 중인 크루즈 관광산업(크루즈 관광객 기준 2015년 60만명 → 2020년 230만명으로 확대 목표)에 있어 기존 협력 중인 중국 하이난도(海南島) 및 일본과 함께 관광산업 육성에 관심이 큰 블라디보스톡과도 협력 관계 구축을 기대

□ 코레츠 러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하바롭스크 소재) 선임연구원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를 포함한 극동개발 정책의 핵심목표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극동지역 이외의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과세특혜,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통관 및 출입국 분야 등에 있어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는 적용 범위가 연해주 전체 지역의 1/5에 해당될 만큼 광범위한 바, 기존 교통 운송회랑(프리모리예 I, II)과의 연계성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한국 동해안 및 중국의 동북 3성간 물류 연결망 구축을 통해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프리세키나‘Russin&Vecchi’로펌 변호사

-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는 △관세 적용 및 △외국인 인력 활용 등에 있어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 제도상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2015년 발효된 해당 법률 이외에도 (현재 심의 중인) 관세 및 이민 등 관련 분야의 여타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함.
 - 따라서, 외부 투자자들의 극동 진출을 위해서는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제도 자체를 설정하는 법령 이외에도 여타 관련 분야 법률 전반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하는 동시에, 러 담당 기관에서 실제 개정 법률들을 어떠한 형식으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 및 검토해야 할 것임.

(3) 제2세션 :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투자진출 방안 (11:04-12:10)

※ 좌장 : 니하예프 연해주 부지사

가. 주제발표

□ 극동지역 유망 프로젝트 소개(티하노프 극동개발공사 사장)

○ 푸틴 대통령이 ‘극동개발은 21세기 과제’라고 할 만큼 극동개발 의지가 확고하고 중앙정부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있음. 극동지역이 지니는 비교우위는 유통분야로, 아직 이 분야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익창출 기회 다대

- 행정 장벽 철폐 및 세제특혜, 극동지역 고급인력풀 조성(극동연방대학교 소재), 항공사 및 항공관련 제조업 등 전략사업도 이미 확보함. 투자자 지원을 위해 극동개발공사가 적극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

※ ‘티’ 사장은 선도개발 및 경제자유 구역 입주 관심 기업들을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7 980 588 0088)를 공개

○ 한국기업들이 극동진출을 오래전부터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으나, 실질적 진출 미미한데 반해 외국기업들은 이미 진출 시작했음.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기업의 성공사례가 필요

○ 자유항과 선도개발구역 비교

비교	자유항	선도개발구역
목표	대외교역 발전	내수시장, 국내산업 진작
차이점	15개 지자체 인프라 구축 : 입주 기업 최저 투자금액 : 3년내 5백만 루블 현재 76개 입주신청서 접수 25억불 상당의 투자사업 추진 예정	12개 지역 인프라 구축: 관리회사(극동개발공사) 최저 투자금액 : 50만 루블 현재 136개 입주신청서 제출 56개 기업 입주 활동 중
공통점	- 환경평가 필요 - 입주 신청서 제출 후 15일 내 극동개발공사가 검토, 전자 승인서 발급, 통보 후 3-10일 내에 계약서 체결함으로써 입주자격 확보	

※ 자유항 입주기업에 한해 5년간 토지세 0%, 재산세 5년간 0%(추후 5년 0.5%), 소득세 5년간 0%(추후 5년 12%), 사회보장세 10년간 7.6%, 통관절차 간소화, 생산

업 외 금융, 보험기업 입주가능하나 세제혜택은 없음.

- 선도개발구역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극동개발공사의 임무인바, 소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극동개발공사의 협조지원 가능

※ 선도개발구역은 극동개발공사가 1차 서류심사, 감독위원회가 평가, 연방정부는 동 내용을 보고받고 점검

□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진출 전략(오영일 POSRI 박사)

○ 지난 25년간 한-러 경제협력은 크게 3시기로 구분하고 양적으로 성장한 한-러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바, 미진한 원인은 △ 정부차원의 관심인 대형 프로젝트(자원개발 및 철도연결, 나호트카 산업공단 조성) 미실현, △ 러시아 극동의 강점을 살린 자원, 물류, 인프라 프로젝트 미미, △ 전체적으로 성과를 거둔 분야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으로 양국 교역구조(한국은 소비재 수출, 러시아는 원자재 수출)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들 수 있음.

○ 최근 극동의 변화(△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조성 △ 2012년 APEC 유치 △ 러시아, AIB 가입으로 금융수단 확보) 및 양국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안을 제안

- (한-러 극동의 새로운 비즈니스플랫폼 조성)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는 비즈니스 플랫폼 조성 필요

- (우리기업에 위탁경영 기회부여) 그간 성공사례의 공통점은 한국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접목한 분야였음을 감안, 러시아 법령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1곳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국측에 위탁경영을 할 것을 러측에 제안함. 한국은 제주자유도시, 인천 FEZ, 중소기업 공동물류단지 조성 등 성공경험과 잠재력을 갖고 있음.

○ 극동지역은 △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 △ 풍부한 자원, △ 한중러 3국의 정책(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신통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성이 가능한 기회요인이 있으나,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 극동개발 정책과 예산 및 하위법령 미비, 구체적인 개발 컨셉 및 중점분야 불확실 등 약점 요소를 해결하려는 러측의 노력 필요

- 우리기업 설문조사 결과, 한국기업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인프라 건설 일정인데, 러 정부는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발표만 하고 언제까지 어떤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기

업은 인식하고 있음. 이는 홍보부족일 수도 있는바, 러측의 적극적인 홍보와 개발정책 공유 노력을 기대



나. 토론

□ 탁재호 수출입은행 동북아사업팀장

- 한-러 경협활성화를 위해 ‘동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등을 통해 총 11 사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석탄개발사업, 자루비노항 개발사업이 있으나, 대부분 초기 단계임. 올해부터는 러시아 개발은행이 의장이므로 좀 더 실질적인 성과사업을 발굴하는데 역할을 해주기 기대
 - 한-러 투융자플랫폼(2013.11월 MOU 체결, 총 10억 달러 규모)은 극동지역 한-러 협력사업을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러시아의 개발은행이 공동 발굴 및 투자/대출 등 50:50 비율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국제 정치적인 요인들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 아쉬운바, 조속히 성공사례가 나오길 기대
 - 투융자플랫폼을 양자간, ‘동북아 수협협의체’를 다자간 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러시아 사업주 및 금융기관 참여가 필수적인데, 한국기업들은 러시아의 기회요인보다는 리스크를 더 크게 느끼고 투자결정을 망설이고 있어 현재 대다수 사업들은 극동개발기금이나 대(총영)사관 등을 통해서 제안되고 있는 실정
 - 러시아 측이 단순히 사업기회를 주고, 사업목록만 제안할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들이 느끼는 리스크 경감방안을 제안하는 게 필요한 시점임. 예로 신용도 있는 러시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혹은 선투자 등에 대한 정부기관의 보증이 필요

□ 테슬라나 Inkom DV 부장

○ 연해주는 인근 아태 판매시장 입지 및 통과화물 처리 경쟁력 보유, 국제운송회랑과 연결되어 발전 잠재력이 다대함. 동 포럼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한국측의 관심을 확인하게 되어 반가움.

※ Inkom DV : 선도개발구역 주축 투자사

- 최근 연해주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만과 연결되는 철도 및 드라이포트가 필요함. 동사가 입주한 남연해주터미널은 이런 역할을 하는 드라이포트가 될 것임. 훈춘-남연해주터미널 연결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 기대

□ 나즈바노프 캄차트카주 투자청 부청장

○ 캄차트카 선도개발구역은 2015년에 확정, 현재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필요한 인프라 부설작업 중에 있으며, 관세혜택 및 민관협력사업 형태 사업도 가능하므로 외국기업들의 관심 다대함. 한국은 캄차트카주의 주요 투자국인바,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를 소개함.

- △선박수리, △물류, △스키리조트 조성, △파라툰카 관광클러스터(380헥타) 개발 사업(전기, 상하수도, 난방 등 인프라 정부 예산으로 구축), △젤레놉스크 오제르키 (127 헥타, 온천관광단지이나 토마토, 오이 등 채소류 재배 농업단지 조성 예정, 현재 전기, 도로 공사가 실시 중), △생수산업(연간 300만톤 생산) 등에 한국기업 참여를 기대함.

※ 캄차트카 선도개발구역(4,000헥타 이상)은 지방정부 20억 루블, 기업은 200억 루블 투자를 계획하고 현재 11개 기업 입주, 이미 부지를 확보함. 항공운송로 교차 지역, 365일 이용 가능한 항만 등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을 갖추고 있어 북극개발 잠재력도 보유

□ 티하노프 극동개발공사 사장

○ 동 포럼에서 다분히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협력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선도개발구역을 한국기업에게 위탁경영을 맡기자는 제안을 환영하며, 야쿠츠크 선도개발구역에서도 이미 외국기업과 유사한 협력 경험이 있어 한국이 관심이 있다면 적극 검토 가능

- (유틸리티 공급 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 가장 먼저 시작된 선도개발구역에 필요한 전력, 용수공급 등은 2017년 말에 마무리 예정

(4) 제3세션 : 러 극동지역 의료기관 투자진출 방안 (13:00-14:10)

※ 좌장 : 쿠스니소프 태평양의대 부총장

가. 주제발표

□ 외국의료기관 유치제도 논의 동향(코로트키흐 연해주 보건국 의료·제약 라이선스 국장)

○ 자유항 내 의료기관 진출은 외국의료진 비자문제, 외국 의료면허 인정, 의료장비 반입 및 의료품 사용 허가 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현재 하원계류 중인 자유항법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하기를 희망함.

- (현재 연해주에 외국의료기관이 합법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호쿠토 병원 등 2곳이 있으나, 진료는 외국인 의사가 아니라 러시아 의사가 하며, 외국 의료진 진출은 태평양의대내에 교수직, 사할린 인터네셔널 SOS 클리닉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는 의료(운영)기관이 진출한 것이고 실제 진료는 러시아 의사들이 수행
- (한국측의 진출 유망 분야가 무엇인지 묻는 방청석 질문에 대해) 심혈관, 암질환 등을 들 수 있음.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많이 가는 분야 조사 필요
- (한의학 분야 진출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허가만 받으면 될 것으로 이미 유라시아 메디컬센터가 한국한의학협회와 MOU를 체결함.

□ 한국 의료기관 투자진출 전략(양지영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 (글로벌 의료 현황) 글로벌 의료시장은 자동차 산업의 4.4배 규모를 지니고 있고, 의료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의료자원의 국가간 이동이 빠르게 진행 중

- 의료통상의 4가지 유형으로는 △통신시스템 이용한 원격 의료, △해외소비(의료관광)형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의료 인력의 해외이동(서비스 무역)이 있으며, 한국은 의료관광에서 시작하여 현재 정부주도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첨단기술 장비를 통한 원격의료에 주력

※ 우리 의료기관은 세계 18개국, 141개 의료센터가 진출해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

○ 한국의료의 강점으로는 위암, 간암 등 주요 5대 암 생존율 및 장기 이식 성공률이 높고, 합리적 의료수가 제공, 첨단기술 장비 보유, 환자중심의 동선 고려 등 높은 임상서비스 수준의 '임상+인프라'

라 결합시스템'을 들 수 있음.

- 중국(서울성모병원), 카자흐스탄(강남세브란스), 벨라루스(대전선병원) 등 중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최근 143% 성장세를 시현

○2013년 한-러 의료협력 MOU 체결 후 한-러 의료분야는 연평균 78%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방한 검진은 중국, 미국에 이어 러시아가 3위이며, 2014년 극동 러시아에서 약 7000 명이 방한치료

- 러측 수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료기관의 극동 진출이 전무한 현재, 자유항 입항 의료기관 관련 러 연방법이 제정되어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의료진출시장은 크게 확장될 것임.

※ 방한 치료의 경우 내과>검진센터>산부인과>피부과 순의 분포

○외국의료기관 진출의 선결과제로는 러시아에서 한국 의료면허 인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시험절차 및 갱신절차 간소화,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 자율 수가제도 제정, 의료분쟁에 대한 합의체 조성을 들 수 있음.

- 기본 환경 분석 필요, 시장수요, 투자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며 자유항과 연관된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이 시급함. 이는 인천자유항 조성관련 세부하위법규 제정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중요함.

○극동진출 모델로는 △한-러 공동출자, 합작투자 방식 △위탁경영(OMA)형태(자본투자가 없어 국내기업 리스크가 최소화됨), △원내원 진출방식(이미 운영 중에 있는 병원의 공간을 임대하여 경쟁력이 있는 분야 현지 거점화로 활용), △turn-key 방식(병원 건설과 운영까지 일괄적 진출)이 있으나, 러시아에서 외국계 의료 진출여건이 마련된 후 타당성 조사 및 시장조사가 선행된 후에야 가능

<p style="text-align: right;">VLADIVOSTOK FORUM</p> <p>Session3 _ The Business development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to medical industry in Far East</p> <p>.....</p> <p>Report1 : <The Business Development for attracting foreign medical center>, Serebryakov Pavel, Vice-governor, Primorsky Government Report2 : <The Business Development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o Fisheries Industry in Russian Far East>, Hwang Sung Eun, Team Leader, Senior Researcher, Global Healthcare Marketing Team,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p> <p>o Discussants Shin Jung Woo, Doctor,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k Oleg, Chief doctor, Medical Center, FEPU</p>	<p>Developing health industry and improving health service in Korea</p> <p>Korean Medical Institutions' Strategies for Advancing into Developing Regions in Far East</p> <p>June 8, 2016 Hwang, Sung-Eun</p> 
<p style="text-align: center;">▲ 제3세션 구성</p>	<p style="text-align: center;">Cont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Global Trend of Healthcare Industry II Excellence of Korea Healthcare III Korean Hospitals' Overseas Expansion IV Korean-Russian Hospitals Partnership Model 
	<p style="text-align: center;">▲ 양지영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p>

나. 토론

□ 신정우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제1-5차 한-러 극동포럼에 없던 의료분야가 금번 포럼 주제로 채택된 것은 장관 및 러측의 적극적 관심을 반영
 - 방한치료 국가별 비율에서 러시아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한국 대형병원의 현지 진출을 러시아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로 판단됨. 이는 방한치료시 발생하는 문제점(정보의 비대칭성, 커뮤니케이션(언어장벽) 문제, 장거리 이동에 따른 환자의 부담)이 없다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한 결과
 - 다만, 한국 의료기관이 블라디보스톡 진출을 위해 다년간 공을 들였으나 3년 후 퇴출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볼 때, 자유항에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자국내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러 정부 주도의 고민 필요

- 현재 한국이 의료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그 토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듯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서 '한-러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실현되기를 희망함.

※ 미네소타 프로젝트 : 1955-61년 미국이 전후 한국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교육 원조 중 대표적인 것으로, 미 국무부 의뢰로 미네소타 의대가 서울대 의대와 함께 시행한 보건의료 지식전수 교육프로젝트임. 이를 계기로 한국 의학교육과 연구 환경이 개선

- (의료수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의료수는 내국인 대비 3-4배 정도로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들이 조율해서 정해짐.

□ 올렉 박 극동연방대 의대 수석의사

○극동연방대 의료센터는 병실 205실, 응급실 25실, 재활병동, Art -therapy, 약학센터 등을 구비한 최첨단 의료시설로 개소식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만큼 극동 의료부문 개발에 러 중앙정부의 관심이 다대

- 한국 의료기관 진출 장애요소로 △의료면허 인정 문제, △의료분야 통번역 미흡, △의료진의 낮은 보수, △러시아 의료인의 한국계 병원에 대한 협력거부, △의료분쟁시 러시아 법원의 판결 중립성 여부를 들 수 있음.
- 반면 타지역 환자 유입효과로 지역 이윤 증대효과 및 대형병원 창설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 한국의료기관 진출 전망이 밝음.

(5) 제4세션 : 수산 분야 한-러 협력(14:10-15:20)

※ 좌장 : 보차로프 TINRO 소장

가. 주제발표

□ 연해주 수산 정책(나스타에프 연해주 수산 국장)

○(연해주 수산업 동향) 연해주의 최근 조업량은 80만톤으로 이중 명태 68만톤, 청어 8만톤을 생산 중이며 2015년 수치로 볼 경우 러시아 전체 어획량 중 연해주가 17%를, 극동으로 볼 경우 27%를 생산하고 있음.

- 연해주는 냉동 및 가공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식업도 활성화 되고

있음. 양식면적은 2만ha로, 6만 ha를 추가 배정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양식 생산량은 5천 톤에 달할 것임. 연해주 남쪽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일부 물량은 수출할 계획임.

○(수산물 클러스터) 연해주는 김치카, 쿠릴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산물클러스터 지역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지정됨에 따라 관리회사도 설립할 예정임.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에 208억 루블의 민간자본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수산물 생산량 증대 및 가공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

- 세부시설로 도매센터, 냉동·저장시설, 수산물 경매장 시설 및 다목적 수산물 가공단지를 설치하고, 총 면적 5만 ha에 아태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단지를 조성하고, 극동연방대에 비즈니스 및 벤처 센터를 설립할 계획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연해주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도 추진 중으로 동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업체들은 무관세 혜택 등 다양한 투자에 편리한 환경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함.

- 블라디보스톡항에 현대식 냉동창고 건설을 위해 30억 루블을 들여 연간 3.5만톤 물량을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4개 기업과 계약이 체결됨. 양식업 관련해서는 600만 루블을 투자하여 전복, 조개류 등 양식업도 발전시킬 계획임.

○(법 적용 및 외국인 투자) 법 관련하여 2014년에 지정된 어업 및 수산자원 보존에 관한 법과 2013년에 지정된 양식업 관련법이 적용되며, 선도개발구역법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도 적용을 받게 될 것임.

-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산업이 국가 전략 분야인 만큼 러시아 반독점청과 투자관련 협의를 해야 함. 연해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연해주 투자청을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부지임대, 에너지 지원 및 법률 등 기술적 문제도 자문하고 있음.

- 또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를 위해서는 극동개발공사와의 접촉도 필요하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에는 세세한 프로젝트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입주시 다양한 제출 서류 등이 나와 있어 외국인 투자에 참고가 될 것임.

- 외국인의 수산업관련 투자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 및 다양한 대출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례로 비에방크라라는 회사가 연안에 전복 양식어장을 설치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은바 있음.

□ 한-러 어업 협력(장홍성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러시아 수산업 구조 및 변화) 한국과 러시아는 그간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해 협력해 왔으나 주로 고기를 잡아 파는 1차 산업 수준으로 향후 가공 등 2, 3차 산업으로 발전 필요

- 극동 지역이 러시아 수산물 생산의 약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종별로 볼 경우 명태가 약 30-36%를 차지함.
- 러시아는 약 80만톤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중 명태가 수출의 약 41%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1위이나 가공 수산물은 비중이 매우 미미한바, 러시아는 명태를 잡아서 수출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
- 명태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1위이고, 미국이 2위로 미국은 생산 및 가공하는 수준까지 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나, 중국은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러시아는 약 150만톤의 명태를 생산해서 80만톤을 수출하며, 이중 20만톤은 한국으로, 54만톤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중국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 러시아는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가공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낮으며, 노동력, 시설 등을 고려할 경우 중국이 가공 분야의 경쟁력이 있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수산물 가공 기술력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기를 기대함.

○(우리나라 투자 방향 모색) 러시아가 현재 수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수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적절한바, 동 계획이 성공할 경우 러시아가 중국에 수산물을 공급해서 유럽 등지로 수출하는 현 체계는 바뀔 수 있을 것임.

- 다만, 러시아 단독으로 수산 클러스터 계획을 성공시키기는 힘들고 한국 등 외국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냉동창고 설치 및 어분공장 설치를 제안함.
- 블라디보스톡항은 6.5만톤 규모의 냉동 및 냉장창고가 있으나 노후화 되어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명태보관 창고가 가장 가능성이 높음. 다만 문제는 하역량이 한국의 시간당 150톤 수준인 반면, 러시아는 100톤 수준이어서 일부 물류흐름이 늦어질 수 있음.
- 한국 기업이 5만톤 규모로 연간 50만톤 수준의 시설 설치를 논의 중으로 투자회수기간(투자금 800억원)은 11-13년 정도로 예상되며 사업 세팅기간은 2년 6개월 정도로 생각함.
- 또한, 수산물 가공공장이 설치될 경우 부산물도 나오는 만큼 수산 클러스터 내에 동 부산물을 이용한 어분공장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어분공장은 연간 7-8만톤의 원료가 필요하고 동 원료에서 부산물 2만톤 정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인바, 대지 5ha, 공장 2개동이 설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재무분석이 안되어 있지 않아 2년 6개월 정도의 세팅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p style="text-align: right;">VLADIVOSTOK FORUM</p> <p>Session4 _ The Business development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to Fisheries sector in Far East</p> <p>.....</p> <p>Report1 : <The policy on attracting fisheries business> Report2 : <The Business Development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o Fisheries Industry in Russian Far East>, Chang Hong Seock, Doctor, Korea Maritime Institute</p> <p>o Discussants Kim Min Su, Director, Korea Trading & Industries co., Ltd. Galitsin, Deputy Chairman, Minister of Fishery, Kamchatka government Ryabchenko Sergey, Head of Kahabarovsk Government,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Fishery Committee Kapitonov Evgenii, Leading advisor, Fishery Agency of Sakhalin region</p>	<p>The Business Development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o Fisheries Industry in Russian Far East</p> <p style="text-align: center;">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p>
<p style="text-align: center;">▲ 제4세션 구성</p>	<p>Table of cont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The Structure and Changes in Russian Fisheries Industry II Competitiveness Analysis of Global Pollack Industry III Foreign Investment Business Model for Fisheries in Russian Far East
	<p style="text-align: center;">▲ 장홍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p>

나. 토론

□ 갈리친 캄차트카 수산국장

- o 캄차트카주는 전체 경제 산업중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최근 7년 동안 수산업 조업량이 러시아 전체 1위로 연간 100만톤을 생산하며, 극동지역 전체 수산물 생산의 약 40%의 비중을 차지함. 품종별로는 명태 40만톤, 청어 16만톤으로 약 500개의 수산업체가 캄차트카 주에서 활동 중이며, 운송가공 산업 등을 포함하여 어선도 6백척이 활동 중임. 연어도 20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태평양산 연어를 관리하기 시작하여 수산 업체에게 쿼터를 주기 시작함.
- 캄차트카주는 외국인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각종 설비, 장비 등을 한국산으로

- 사용하는 등 한국과도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음. 2015년에는 캄차트카산 수산물 25%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최근에는 한국과 캄차트카주 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러시아 전략부와 한국 기재부가 함께 투자 및 교역협정 초안을 마련한 바 있음.
- 러시아 수산업의 미래는 외연적 확장이 아니라 내부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가공식품 생산 확대를 중요목표로 추진 중으로 일부업체는 2만 5천톤 청어를 가공하여 양식업도 발전시킬 계획임. 한국도 태평양 연어 500톤을 양식업으로 생산한 만큼 지역 상황이 비슷한 캄차트카주도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고 판단
 - 캄차트카주도 선도개발구역을 활용해서 수산업체 진출을 추진 중으로 북극항로 이용 등에도 캄차트카주가 유리한 지역으로 자원과 환경이 비슷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캄차트카주에 선도개발구역이 8개 부지가 선정된 만큼 한국투자자가 수산물 가공분야에 투자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함.

□ 김민수 한국통산 이사

- 2018년에는 향후 10-20년간의 어업 쿼터가 재분배될 것으로 20%의 쿼터를 어선 건설 및 인프라 투자 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러시아에서 어선을 만들 경우 쿼터를 준다고 알고 있는바, 대형어선은 칼리닌그라드 및 상트 지역에서 건조할 가능성이 있으나, 중소어선은 한국과 협력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봄.
 - 중소형 어선은 극동에서 수요가 많다고 알고 있는바 한국은 최근 어려운 조선업 상황으로 인해 파산하는 어선 건조 기업이 많아 동 물량을 수용할 장비, 시설이 충분한 만큼 한국의 유휴 장비와 인력 등을 동원해서 어선을 건조하는 것을 러측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러 협력을 통해 한국 도움으로 향후 20여년간 필요한 4-5백여척의 중소어선을 건조할 경우 한-러 수산 분야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수산클러스터의 경우 러시아가 생각중인 한국의 부산항 모델보다는 미국의 시애틀 및 한국의 부산항 모델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러측이 수산 클러스터 지역으로 연해주, 캄차트카, 사할린 지역을 선정했으나 한국통산의 경우 양식산업으로 7-8년간 가리비 양식에 투자했으나 투자에 실패 함. 장기간 외국 업체가 안정적으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산보험을 러측에서 만들 필요가 있는바, 연방정부에서 50%정도 보조를 하고 지방정부 및 업체가 나머지 비용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또한, 러측이 생각하는 고차 가공 분야 보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저장, 보관기간을 늘려 공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임. 미국의 경우 기존 10일 정도에서 20일 정도로 보관기간을 늘려 소비자에게 고품질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음.
- 캄차트카주는 관광과 수산업을 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임. 한국에서 캄차트카 크랩이 유명하나 실제 캄차트카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 이를 관광 특화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국통산도 블라디보스톡에 냉동창고 건설을 검토 중으로 연해주의 경우 3만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 생각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30만톤 정도 규모의 냉동창고가 필요하도 생각됨.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러측과 논의할 의향이 있음.

□ 카피토노프 사할린 수산국 고문

- 사할린주는 수산물의 약 14%를 사할린에서 생산하는바 에너지 분야 다음으로 수산업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연해주에 적용되는 메커니즘과 동일하게 사할린 코르사코프항을 개발하여 수산업을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 중으로 전체 2만5천톤의 보관시설, 도매, 포장 시설, 전시시설 및 선박 수리시설 지역 등 수산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임.
 - 러측 스베르뱅크와 대금을 전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위해 1단계로 2016년 말까지 스베르뱅크와 비즈니스체계 관련 로드맵 마련 계획임.
 - 또한, 소비, 물류센터를 구축해서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수산물을 더욱 빨리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수송비도 절감할 계획으로 외국기업들도 투자 및 협력을 기대함.

(6) 제5세션 : 물류, 통관 문제 및 해결 방안(15:40-16:50)

※ 좌장: 김성귀 KMI 원장

가. 주제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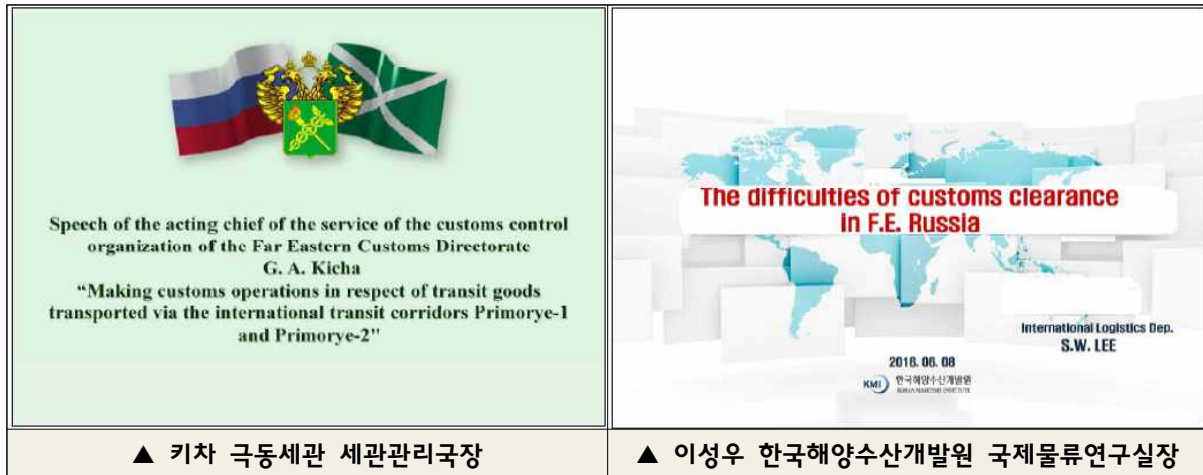
- 연해주 국제운송회랑(프리모리예-1,2)에서의 통과화물 처리 절차(키차 극동세관 세관관리국장)

- 연해주 국제운송회량은 △2005년부터 도입된 전자신고제(현재 세관신고 상품의 99.9% 적용), △사전정보제공 및 사전신고, △자동등록 및 자동출고 시스템, △부처간 전자상 정보공유, △2015년부터 물류업체에 대한 최신정보제공 가능 항만포털사이트 운영 등 통관의 여건이 구축
 - 이를 통해 종이문서 제출 축소, 각종 계약문서, 운송서류 제출이 불요
- 최근까지 한국기업의 연해주 국제운송회량(프리모리에-1,2) 이용 실적은 미미(지난 3년여간 약 500여건, 1만톤 규모)함.
 - 금년 4개월간 193건(약 3천 톤)의 물류가 자동차 및 철도를 통해 처리
- 통과화물의 통관을 위해 관세동맹 회원국의 수출입 금지품목이 아님을 입증해야하고, 거래, 통과 관련 정보가 담긴 통과운송신고서 제출 필요. 주요 통관지연 요인은 위생검역 대상 물품 운송시 제출서류 하자, 수취인 불분명 등임.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내 생산, 가공을 위해 반입되는 부품, 원자재는 관세자유지역 (CFZ) 통관절차가 적용(무관세 반입)
 - 유라시아경제연합(EEU) 회원국 이외 지역으로 반출시 상공회의소 승인이 있을 경우, 무관세 반출 가능

□ 극동지역 물류 통관 문제점(이성우 KMI 국제물류연구실장)

- (극동지역의 물류현황) 극동지역의 물류시장(인구 6백만)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비례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2008년 러 국내 세관개혁에 의거 극동지역 통관 기능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유망한 분야로 부상 예상
 - SWOT 분석에 따르면, 중국 동북3성 물류를 중국 대련이 아닌 극동지역을 통할 경우, 시간은 2-3일 단축, 비용은 50% 절감이 가능
 - 부산항만공사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컨테이너 30만 TEU에서 동북3성이 차지하는 물류(20만 TEU)는 러시아가 유치 가능한 물류로 평가
- (극동지역 물류의 문제점) 극동물류의 가장 큰 약점은 국경통과 시간이 과다하고 물류처리능력(인프라 등)이 부족
 - 러시아는 여타국가보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출해야 하며 농수산물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
 - 연해주 크라스키노 러-중 국경통과소의 경우, 일일 통과화물 처리 가능량은 화물차 50대, 버스 50대 수준에 불과

- (개선방안) 양국간 물류 활성화를 위해 세관당국간 협업이 중요함. 구체 개선방안으로 △기 추진 중인 전자신고제의 제도적 보완, △원스톱서비스 확대 실시,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통관 업무의 글로벌화 등을 제안



나. 토론

□ 천석범 유수로지스틱스 전무

- 러 극동지역 물류시장은 중국 동북3성 물류와 연계될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반 규제완화, 인프라 개선과 맞물려 향후 발전의 여지가 상당함.
 - 유수로지스틱스는 백두산 생수를 러 자루비노항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는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러측 물류통관 어려움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는바, 극동지역 물류 발전을 위해 중국의 시행착오(정부지원금 미사용, 민간투자유치 부족)와 성공요인(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 부여, 대표 투자기업 선정 등) 참고 필요

□ 크라제프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관

- 물류 등 한-러 협력확대의 시발점은 이미 구축한 양국간 대화채널을 적극 가동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양국 세관 당국간 접촉 재개를 희망
 - 한국 측에서 특히 통관과 관련한 많은 불만과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 세관당국은 통관간소화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정부가 합의한 사전정보공유 시스템의 정상작동이 필요

□ 쿠릴로바 전략이니셔티브 극동대표

- 비즈니스 환경 평가에 있어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지수가 가장 중요. Doing Business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통관 부문 순위는 160-170위로 최근 관련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선 필요
 - 기업인들이 자주 제기하는 불만사항은 △화물별, 위치별 통관소요시간 차이, △다수의 서류 제출 요구, △통과화물 통관시 전자제도 미적용, △단일창구 제도 미작동 등임.

(7) 제6세션 :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에너지 협력 방안(16:50-18:00)

※ 좌장: 루킨 극동연방대 교수

가. 주제발표

□ 극동지역의 가스파이프라인 시스템, 선도개발구역내 가스공급 계획 및 한국기업과의 협력방안(로빈슨 가스프롬 극동지역 가스분배 소장)

- (극동지역 가스화 사업) 가스프롬 가스분배사는 가스공급, 가스공급 관련 설비 보수 등의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되어 현재 하바롭스크주, 연해주, 캄차트카주 등 극동지역 내 354개 기업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 2011년부터 가동된 극동가스배관을 통해 극동지역 가스화 사업(5개년)을 추진 중임. 연해주는 극동연방대 캠퍼스, 대형 열병합발전소 등이 주요 수요자임.
- (향후 추진 방향) 극동지역내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 공공서비스 현대화, 환경정책 등에 부응하여 천연가스 수요자 파악, 중단기적 가스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연해주정부 승인 하에 가스화 이행계획을 채택, 20여개 가스공급시설 설계 작업이 착수되었으며, 불쇼이카멘 조선소, 선도개발구역(나데진스카야, 미하일롭스키) 입주기업에 대한 가스공급 계획을 수립
- (한국과의 협력) 한국이 천연가스버스, 도시가스 등 對소비자 가스공급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프로젝트 추진시 노하우 공유 등 상호협력을 희망

□ 한-러 에너지 협력(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

○(러시아 에너지의 의미) 동시베리아원유(ESPO)는 그동안 동북아 국가가 감수했던 아시아 프리미엄을 상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러시아 가스는 2030년까지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안보 확보에 있어서 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산 원유가스 공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러시아의 對유럽 에너지 공급비중은 원유 76%, 천연가스 84%로서, 러 정부는 동아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출비중을 3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

○(한-러 에너지 협력현황) 양국간 에너지 협력은 그 잠재력에 비해 성공사례가 미미하며 특히, 서캄차트카 원유프로젝트 실패 후 후속사업 논의는 사실상 전무

- 한국은 러 극동지역으로부터 원유(한국 수요의 3%)와 천연가스(연간 150만톤) 수입 수준의 협력에 머물고 있으나, 양국간 에너지 협력 잠재력은 여전히 다대

○(한-러 에너지 협력전망) 극동 및 동시베리아 가스전 통합을 목표로 착수된 ‘시베리아의 힘’ 프로젝트와, 아직은 미개발단계인 초대형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의 향후 주요 공급처는 동북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가스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가스비중 점증, 가스 관련 산업 확대 추세, 최근 한국정부의 가스발전소 확대계획 발표(미세먼지 감소 대책 일환) 등 감안시 양 국간 동 분야 중장기 협력방안 마련 필요

 <p>Presentation by Head of Primorsky production-operational branch JCS "Gazprom gas distribution Far East" Lovygin Nikolay Nikolaevich</p> <p><small>Prospects of gasification development at the Far East, gas supply to new TASED projects and cooperation with Korean companies</small></p>	<p>The 6th Korea-Russia Far Eastern Forum</p> <p>Ener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p> <p>Se Hyun Ann,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8 Director The Center for Energy Security Strategic Studies University of Seoul June 8th, 2016 Vladivostok, Russia</p>
<p>▲ 로비긴 가스프롬 극동지역 가스분배 소장</p>	<p>▲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p>

나. 토론

□ 김명중 포스코에너지 그룹장

○LNG는 동북아 내 핵심 에너지로 부상하였으며, 미국 셰일가스는(내년부터 한국 도입) 러시아산 가스와 경쟁이 불가피

- 러 극동지역산 LNG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아시아 전체의 수요증가 추세와 함께 러시아 에너지社의 천연가스 관련 신규사업이 보다 확대될 전망(가즈프롬사는 2020년부터 LNG 병커링 사업 추진을 계획)

□ 전명수 이투데이 러시아 주재기자

○한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사업은 대부분 MOU 체결 단계에 머문 경우가 대다수이며,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 시도가 실패로 끝남. 메가 프로젝트는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추진 필요

- 극동지역 내 한국산 가스보일러 공급 사업은 러시아의 수요와 한국의 기술, 노하우가 잘 결합되어 만들어진 작은 성공사례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제도 시행으로 신규기업 진출 증가 추세를 감안, 신규 에너지 협력사업 확장이 필요

□ 갈채바 극동과학아카데미 북동종합연구소 부소장

○마가단주는 풍부한 전력, 고품질의 석탄 자원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나(추정 매장량 430억 톤), 여타 극동지역 연결 전력망 및 교통인프라가 열악하여 자원 활용 및 개발수준이 낮은 상황임. 2025년까지 유효한 마가단 경제특구에 따른 제반 세제혜택과 행정지원이 보장되는바, 콜리마 석탄회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탄광개발 사업 참여를 기대

IV. 부록

<제6차 한러 극동포럼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08:30 ~ 09:00	참석자 등록 및 자료 배포
09:00 ~ 09:30	o 개회사 : 안제영 경인연 이사장 / o 환영사 : 미클루웁스키 연해주지사, 고르차코프 연해주의 회 의장, 페데톱스키 극동개발부국장, 티하노프 극동개발공사 사장, o 축사 : 총영사
09:30 ~ 09:40	사진 촬영
세션 I	【극동지역진출1】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제도 추진 동향
09:40 ~ 10:50 좌장 : 김동주 국토연 원장	<p>▷ 러 정부의 TOR와 자유항 제도 추진 동향 : 추진현황 및 법 개정 동향</p> <p>▷ TOR와 자유항 제도 중 기업이 관심 있는 핵심 분야 추진 동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 제도 추진 동향 : 24시간 checkpoint 운영 등 - 통관 제도 추진 동향 : single window, electronic Declaration, green corridor 등 통 관 제도 실시 - 세제혜택 : 러 국내에 판매할 경우 이를 위한 장비, 부품, 물품에 대해 세제혜택이 제 공되는가? - 러 정부의 TOR와 자유항 인프라 구축 계획은? <p>▷ 한국의 경제특구 성공요인 분석, 러 TOR 및 자유항, 러 경제특구와 한국의 제도 비 교, TOR와 자유항 제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p> <p>o 주제발표1 :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제도 추진 동향(페데톱스키 극동개발부 선도개발구 역 국장)</p> <p>o 주제발표2 : 한국의 러시아 투자진출 경험과 러시아 TOR 및 자유항 활성화 방안(한우석 국토연구원 박사)</p> <p>o 토론자 : (한측)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러측) 코레츠 하바롭스크 극동과학 아카데미 경제연 구소 선임 연구원, 프리세키나 Russin & Vecchi 변호사</p>
세션 II	【극동지역진출2】 TOR 및 자유항 투자진출 방안
10:50 ~ 12:00 좌장 : 니하에프 연해주 부지사	<p>▷ 극동지역 유망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인프라, 운송물류, 관광레저, 첨단산업, 농업 및 수산물가공, 제조업 및 조선 등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극동지역 유망 프로젝트 소개 - 극동개발기금 등을 외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p>▷ 한국기업이 TOR와 자유항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 극동지역 진출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1 : 극동지역 유망 프로젝트 소개(티하노프 극동개발공사 사장) ○ 주제발표2 :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진출 전략(오영일 POSRI 박사) ○ 토론자 : (한측) 탁재호 수출입은행 팀장 (러측) 테슬리나 Inkom DV 부장, 나즈바노프 캄차카주 투자청 부청장
12:00 ~ 13:00	오찬
세션 III	【극동지역진출3】 러 극동지역 의료기관 투자·진출 방안
13:00 ~ 14:10 좌장 : 쿠스니소프 태평양의대 부총장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 정부의 의료기관 관련 자유항법 개정 논의 동향은? 향후 전망은? - 의료보험 적용, 외국 의료진 체류 자격 및 의료면허 인정, 장비 및 의약품 허가 등 외국의료기관 특혜적용 사항 논의 동향 ▷ 한국 의료기관의 극동지역 투자·진출 전략은? - 한-러 의료기관간의 협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유망 진출 분야는? ▷ 한국 병원의 해외 진출 사례 - 극동지역에도 적용 가능한가?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1 : 외국의료기관 유치 제도 논의 동향(코로트키히 연해주 보건국장) ○ 주제발표2 : 한국 의료기관 투자·진출 전략(양지영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 토론자 : (한측) 신정우 보건사회연구회 박사 (러측) 올렉 박 극동연방대 의대 수석 의사, 사할린 주정부
세션 IV	【극동지역진출3】 러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진출 방안
14:10 ~ 15:20 좌장 : 보차로프 TINRO 원장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수산업의 현주소와 극동 수산클러스터 등 동 분야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 협력 장애 요인 해결 : 수산분야 법령 정비, 인프라 구축 방안 ▷ 안정적인 물량 공급, 수산물 가공무역 지원제도 등 생산과 수출관련 러 정부 지원정책 ▷ 수산자원 보존 및 활용에 있어 협력 방안 및 전망(쿼터/양식업/어선건조/합작기업)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1 : 수산기업 유치 제도 동향(나스타예프 연해주 수산국 국장) ○ 주제발표2 : 한국 수산 분야 기관 투자·진출 전략(장홍석 KMI 수산정책연구실 박사) ○ 토론자 : (한측) 김민수 한국통산 이사 (러측) 갈리촌 캄차카 수산국장, 카피토노프 사할린 수산청 고문
15:20 ~ 15:40	Coffee Break
세션 V	【물류】 극동러시아 물류·통관문제 및 해결 방안

<p>15:40 ~ 16:50 좌장 : 김성귀 KMI 원장</p>	<p>▷ 러 극동지역 물류 통관 문제점 진단 ▷ 지경학적 측면에서의 연해주 국제운송회랑(프리모리예-1,2) 프로젝트 평가 및 전망 - 수분하-블라디보스톡-부산항 가능성과 전망 ▷ 국제운송회랑별 중-러 국경 통관시 발생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환적화물에 대한 통관속도, 통관량, 통관시간, 통관서류, 통관시설, 검역방식 등 관련 발생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p> <p>○ 주제발표1 : 연해주 국제교통로 1,2에서의 통과화물 처리 절차(키차 극동세관 세관관리국 국장) ○ 주제발표2 : 극동지역 물류 통관 문제점(이성우 KMI 국제물류연구실장) ○ 토론자 : (한측) 천석범 유수로지스틱스 전무 (러측) 크라제프 주한러대사관 관세관, 쿠릴로바 Agency of Strategy Initiative 연해주 소장</p>
<p>세션 VI</p>	<p>【에너지】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에너지 협력 방안</p>
<p>16:50 ~ 18:00 좌장 : 루킨 극동연방대 교수</p>	<p>▷ 러 극동지역 석유가스 개발 동향 - 시할린 프로젝트 추진 동향, ‘시베리아의 힘’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추진 동향, 극동 LNG 플랜트, 블라디보스톡 LNG 추진 동향 -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는? ▷ 한국기업의 극동지역 석유가스 산업 분야 관련 협력 방안은? - 한국의 에너지 산업 강점과 협력 가능성 ▷ 왜 최근 극동지역 내 메가 에너지 프로젝트의 협력 대상은 오직 중국인가?</p> <p>○ 주제발표1 : 극동지역의 가스파이프라인 시스템 및 선도개발구역내 가스공급 계획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로브린 가스프롬 극동지역 가스분배 소장) ○ 주제발표2 : 한국기업의 극동지역 석유가스 산업 분야 협력 방안(안세현 서울시립대 에너지안보 전력연구소장) ○ 토론자 : (한측) 전명수 이투데이 기자, 김명종 포스코에너지 그룹장 (러측) 갈체바 마가단 북동 과학아카데미 부소장</p>
<p>18:00 ~ 18:20</p>	<p>마무리</p>